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 동 교 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성탄전야예배

2020년 12월 24일(목)

예배시간 오후 7시 30분

복음의 빛 | 노진숙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라(J. S. Bach)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109장(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전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어, 구유에 누우신 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기뻐했던 목자들처럼,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 모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회 중: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목 사: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회 중: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목 사: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회 중: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목 사: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회 중: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못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시 96편).

경배찬송

112장(그 맑고 환한 밤중에)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며,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약 5:15),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경동찬송 12장) 다함께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서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시 86:5), 여러 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영광(경동찬송 14장) 다함께
하늘에서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영광 알렐루야 알렐루야

말씀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9:2-7 최고권 전도사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문은 군복이 모두 떨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연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서신의 말씀 디도서 2:11-14 박재준 전도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복음의 말씀** 누가복음서 2:1-14 **목사**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 때에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125장(천사들의 노래가) 후렴 **다함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 - 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김필연 권사**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Gesu Bambino(Pietro, A. Yon) **유희엽 집사**
설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채수일 목사**
기도 **다함께**

보냄

***보냄찬송** 108장(그 어린 주 예수) **다함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F. X. Grüber) **오르가니스트**